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3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행동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에스더서 강해

실망을 뛰어넘는 믿음

(에 2:19-23)

The Confidence That Jumps Over a Disappointment

(Esth. 2:19-23)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유대인이요, 포로요, 또한 고아였던 에스더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고, 그녀의 사촌 오빠 모르드개는 높은 공직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개는 수산 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모, 곧 아하수에로 왕의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개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를 해서 이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청난 공을 세운 모르드개에게 당시에 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 일이 궁중 일기에는 기록이 되었고, 몇 년이 지난 후 아하수에로 왕이 이것을 알게 되어 왕은 아주 큰 상을 모르드개에게 내리게 됩니다.

왕에게 상을 받기 전까지 모르드개는 이 일로 인해 마음에 큰 서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웬일인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듯 하여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형들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시 105:17-18).

요셉을 묶고 있었던 것은 요셉의 손과 발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그의 영혼도 그렇게 차포에 묶여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바라보시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를 단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르드개의 공로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찬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모르드개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2인자가 되었고, 그들의 원수인 하만 장군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평안이고, 우리의 축복이며,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이 믿음 끝까지 굳게 붙들고, 모르드개처럼, 요셉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sther who was a Jew orphan, also a prisoner of war, became a queen of the great Persian Empire. And her cousin, Mordecai, took a seat at the high ranking public office.

One day, Mordecai learned about an assassination plot of the king Xerxes inside the citadel of Susa, conspired by king's two close servants, Bigthana and Teresh, who held grudges against the king. Mordecai informed Queen Esther, who in turn reported it to the king, giving credit to Mordecai. And when the report was investigated to be true, their plot went to pieces.

After the incident, however, Mordecai did not receive recognition right away for some strange reason though Mordecai had performed an extremely meritorious actions. Luckily enough, his actions were recorded in the book of annals. A few years later, king Xerxes read the record and awarded Mordecai a very big reward.

Until his actions were rewarded, Mordecai might have had grievances and sad feelings. We may also feel the same way as we walk by faith.

Though we do our best to live our life by faith and to obey God, we may get our emotions hurt because it feels as if our prayers are not answered, our faith toward him not being recognized.

Joseph must have felt the same with us. Joseph retained the dream that God gave him in his heart and he did his best to live his life by it. Yet he suffered indescribable hardship, being sold as a slave to Egyptians, was falsely accused and was imprisoned because of his brothers whom he loved dearly.

"He sent a man before them—Joseph, sold as a slave. They bruised his feet with shackles, his neck put in irons, (Ps. 105: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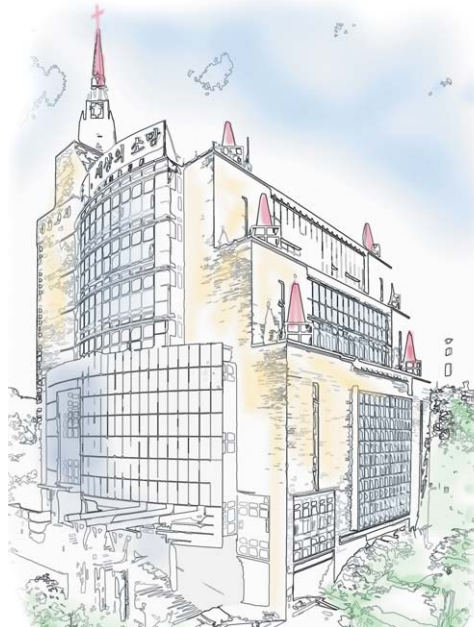
It was not just Joseph's hands and feet that were shackled. His heart and his soul were also in the midst of sufferings of shackles. But, God wasn't just watching Joseph suffer. He had a plan set out for him. Through the sufferings, God chastened him till he was in charge of Egypt. This is the way

that God works.

Though Mordecai's meritorious actions seemed unnoticed at first, it was used as a decisive chance to save Jewish people later on. And because of this incident, Mordecai became second-in-command of the great Persian Empire, defeating their sworn enemy General Haman.

My beloved Christians!

God's plan is complete. God's ultimate plan is our peace, blessings, recovery, and revival. By holding firmly in faith till the end, I sincerely bless you to win the victory just like Mordecai and Joseph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중에 진행 중

중등부 : 24(목)~26(토)
디아스포라부 : 26일(토)
에바다부 : 26일(토)

2013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 중이다. 금주는 중등부가 24일~26일(토) 아가페 타운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주제로, 디아스포라부가 26일(토) 서울교회에서 주제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으로, 에바다부가 26일(토) 서울교회에서 "작은 자들의 벗이 되자"라는 주제로 각각 진행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새 힘을 얻는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를 위해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4(주일)~26(토)	서울교회	예수님처럼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됩시다	구본해 전도사
유치부			작은 이들의 친구	박다형 전도사
유년부			나는 좋은 친구입니다!	김안성 목사
초등부			작은 이들의 친구가 됩시다	최만혁 전도사
중등부	1.24(목)~26(토)	아가페타운	내 양을 먹이라	박노철 목사 노정호 목사
사랑부	2.17(주일)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한상은 목사
청년1부(대학부)	2.1(금)~2.2(토)	아가페타운	So One(소원)	박노철 목사 허승일 전도사
청년2부	2.1(금)~2.2(토)	아가페타운	So One(소원)	박노철 목사 오세광 목사
청년3부	2.1(금)~2.2(토)	아가페타운	So One(소원)	박노철 목사 정수길 목사
디아스포라	1.26(토)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박노철 목사 서명철 목사
에바다	1.26(토)	서울교회	작은 자들의 벗이 되자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2.16(토)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한상은 목사

요람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 20일(주), 27일(주) 704호에서

교회는 요람 제작을 위해 1월20일(주)과 27일(주) 오전 10시30분~15시 704호에서 사진 촬영을 한다. 대상은 교적부에 사진이 없는 서리집사 등 직분자들이며 기존 사진을 변경하고자 하는 성도도 촬영이 가능하다. 촬영이 힘든 성도들은 사진을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이메일(cyc@seoulchurch.or.kr)로 보내주시기 바란다.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필사 : 이신정 권사(2교구)
4독 : 강영순 권사(6교구) 3독 : 김미재 성도(13교구)
2독 : 진경자 권사(1교구) 안창희 집사(2교구) 정봉금 권사(2교구) 김희진 권사(6교구) 하정자 권사(6교구)
1독 : 강승용 집사(1교구) 유선희 권사(1교구) 배재송 집사(3교구) 임분도 권사(3교구) 이남성 집사(9교구) 정유정 집사(13교구)

2013 비전2020운동 후원자의 밤 오늘 찬양예배 후, 801호에서

교회는 '비전2020운동(부장 이갑진 장로) 후원자의 밤' 행사를 오늘 찬양예배 후 801호에서 연다. 후원자의 밤 행사에는 육군 3사단, 간호사관학교, 해병대 사령부, 해병대 교육훈련단 장병들과 우리교회 파송 군선교사 6명 등이 참석한다. 군 복음화를 통하여 민족의 75%를 복음화하는 이 위대한 비전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비전2020 운동 후원자의 밤'에 참석한 군장병들과 관계자들

다락방 리더 일일 수련회 1월 22일(화) 오전 10시~12시 / 본당

다락방 리더 훈련이 겨울 방학을 마치고 1월 30일 개강한다. 이에 앞서 다락방 리더 일일 수련회가 22일(화) 오전 10시~12시에 본당에서 열린다. 이후 만나홀에서 점심 식사가 있을 예정이다. 다락방 리더들은 전원 참석하기 바란다.

'2013 신년 비전컨퍼런스' 서울 강남노회 주최로 우리교회에서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전인적 사역으로 교회 본질 회복을 추구하는 비전 컨퍼런스(Vision Conference)가 오는 23일(수)부터 사흘간 우리 교회에서 열린다. 서울 강남노회가 주최하고, 한국DNA(Disciple Nations Alliance)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밥 모피트 박사(하비스트 총재, 국제DNA 공동설립자), 대로우 밀러(전 국제기아대책 부총재, 국제DNA 공동설립자), 김재현박사(한국고등신학연구원 원장) 등이 강사로 나서 '한국교회의 역사적 소명과 나아갈 길', '교회의 역할' 등의 강의를 한다.

· 회비 : 5만원(입금계좌 : 526-026825-01-017 기업은행)
· 문의 : 한국DNA협의회(www.dnakorea.org)
총무 김진식 목사(010-2602-8413)

직원모집

- 교회 사무국 총무(서무) 담당 1명
- 세례교인으로 교회행정 업무 가능한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 제출처 : 서울교회사무국 (문의 : 02-558-1106)

※ 이종운 원로목사님의 성경난해구절해설 "목사님, 궁금해요"는 지면관계상 금주는 쉽니다.

김광신 은퇴장로 원로장로로 추대

지난 주일 교회는 20년 동안 시무장로로 섬겨오다 은퇴한 김광신 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했다. 김 장로의 원로장로 추대안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1월 6일(주)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창립 이래 원로장로로 추대된 경우는 이승선 장로와故 임광식 장로에 이어 김광신 장로가 세번째이다.



비전2020 운동 후원자

최원석, 박길희, 김치삼, 노송성, 이영욱, 최소희, 이재운, 이용자, 안홍희, 전화진, 김성준, 김선영, 이태정, 이진희, 김영준, 박태희, 정기자, 김영정, 양옥자, 김윤숙, 권애란, 권혁만, 정갑례, 박정자, 김희진, 홍광숙, 선병욱, 정애신, 황현숙, 손태기, 양춘경, 이인숙, 이순용, 오지열, 하숙, 서춘식, 송행희, 배옥선, 김명심, 손재결, 차동길, 송명심, 김혜경, 손태현, 박내길, 오정숙, 김유근, 김윤섭, 박명석, 남경희, 하영수, 강창숙, 김숙자, 김복녀, 권소희, 나기태, 노영환, 홍은경, 이근홍, 문분순, 마리아전도회, 에스더전도회

(다음 주 계속)

농어촌100교회운동 후원자

노송성(이영욱), 김치삼, 김희욱, 마리아여전도회, 박정자, 1-11다락방, 안홍희(전화진), 김성준(김선영), 김혜수(윤운), 에스더여전도회, 황현숙, 김복녀, 하영수, 한승집(최미아), 박내길(오정숙), 김혜경, 김명심, 홍석현, 양춘경(이인숙), 박 옥, 김용환, 김금준(이현주), 홍춘기, 노병희(방덕자), 이 호, 박찬성(심명숙), 박노철(김은경), 김관규(윤혜련), 주화인

(다음 주 계속)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김용환 원명희 김성주(한주희) 신용식(김신영) 박옥 배재송(임분도) 이현수(조희) 양옥자(김진한,김민우) 정기자 김윤숙 채혜숙 박정자 주차훈(윤계진) 마리아전도회 한승희 노송성(이영욱) 원용규(박이선) 공민호 정춘혜 안홍희(전화진) 윤정일(이승인) 김성준(김선영) 에스더전도회 황현숙 김영표(원소희) 김복녀 한승집(최미아) 류동석(이영미) 류한민 류한희 최봉애 김복순 박광수(김정자) 심설아 심주하 심재호 심재영 송행희 양춘경(이인숙) 강수남(송경옥) 박미경 이재봉(이경구) 노병희(방덕자) 김금준(이현주) 이종일 이유성

(다음 주 계속)

2013년 일꾼들에게 듣는다

기도로, 순종으로, 부흥의 밑거름으로

김광룡 집사(스데반회장)



2013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안수집사로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동안 둘로 나뉘었던 스데반회가 금년부터는 하나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데반회에 큰 과제를 안겨주셨습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회원들의 마음을 감싸고 소통과 화합, 겸손과 봉사,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통합된 스데반회 회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기도와 순종으로 연합된 모습을 보여 나가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안수집사로서 소명의식이 약해지고 나타해져가고 있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안수집사로 선출되어 임직을 앞두고 교육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로 무장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교회의 여러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찾아 행하는 스데반회가 되어야 합니다. 247명의 스데반회원이 뭉친다면 기도운의 300용사가 될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옥 권사(제2권사회장)



권사회장직을 맡고 보니 만나는 성도들마다 인사가 "수고 많이 하시겠네요"였습니다. 그때 마다 저는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많은 기도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임직원들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제자리를 맡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3-3다락방 식구들은 지난해부터 모일 때마다 기도와 격려로 힘을 주었고 영양제까지 챙겨주어 참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2월 총회 이후 여러가지 교회 행사들을 치르면서 임원들이 앞장 서서 한 마음으로 동역해주는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두려워 하지 않고 염려하지도 않겠습니다. 일년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서울교회를 위하여 저희들 제2권사회, 맡겨진 몫을 잘 감당해나가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허숙 권사(제1권사회장)



나의 행질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합함과 덕없이 부족함을 아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권사회장이란 중책을 맡기셨으니 분명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니오'는 하지 않고 '예'만 하겠습니다.

우리 159명의 제1권사회원 모두는 '기도의 어머니요, 섬김의 어머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안으로 서로 돌아보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적으로는 열심을 내어 섬김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사회는 교회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담임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며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의 연합과 부흥에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1-2)

젊은이 예배를 시작하며



감격적인 첫 젊은이 예배를 드리고

이민정 성도(청년1부)



젊은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정으로 진심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젊은이 예배가 2013년 1월 13일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드러졌습니다.

서울교회를 다니며 박노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성경의 진리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서울교회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과 많은 프로그램들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사람100% + 하나님100%"를 기억하며 믿음의 선배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운 서울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100%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인이었던 자리를 그 분께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 뜻만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변화에는 늘 두려움과 기대가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갈림길에서 누군가는 믿음을 갖고 꿈꿀 수 있고 누군가는 염려 속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이끄심인 줄 믿으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젊은이들은 참 감동적이고 감성적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충만하여 진정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더욱더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고 주님을 깊이 만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자체 예배



사진: 손동혁 집사(편집부)

디아스포라부 겨울 수련회 초대

민족복음화의
큰 일꾼
되소서 ...



김용환 집사(디아스포라부 부장)

살림! 디아스포라부를 서울교회에 맡겨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 디아스포라부는 동토(凍土) 북한에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목숨을 걸고 넘어 온 탈북 형제 자매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곧 다가올 통일 조국을 대비하여 민족 복음화와 북한 선교에 앞장서는 주님의 큰 일꾼들을 양성하는 뚜렷한 목적과 방향을 가진 서울교회 신앙 학교입니다. 그 동안 상당수의 학생들이 교회의 지원과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교역자와 교사들의 헌신으로 신앙교육과 함께 사회 적음 훈련을 받아 지금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회인이자 독실한 신앙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현재 아직은 어리고 약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준비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신앙훈련을 받고 있으며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에 힘 입어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그들의 큰 소명을 다 할 것이라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부는 2013년 겨울수련회를 1월26일(토)에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이라는 금년 표어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는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과 기도, 목사님의 귀한 말씀, 교사와 학생들의 간증 교환,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배우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소중한 기도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에바다부 겨울 수련회 초대

작은 자들의
벗



연인호 집사(에바다부 부장)

청각장애인 부서인 에바다부가 1월 26일(토) '작은 자들의 벗을 주제로 겨울수련회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수련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상속받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도 그 자리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감격하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에게 전하며,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는 에바다부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동안 교회에서 갖는 짧은 겨울 수련회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작은 자들의 벗됨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의인들은 그들이 이전에 행했던 어떤 선한 행위도 드러내 보이려하거나 기억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님을 또한 기억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으며,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고 죄인들을 불러주서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해병대 사령부 군악대(지휘: 하태진 군악대장)가 연주한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해도", "사랑은 언제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의 세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2일(화) 서울노회 4개교회(금호, 동서울, 송정, 왕십리중앙교회) 당회원연합수련회 특강을 한다.
- 주간식당봉사: 빌립 선교회(1.20) 안드레 선교회(1.27)
- 금주의 식사: 하인선 장로 남태순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드리며)

중등부겨울 수련회 초대

어느 학원 원장님의 일기

노정호 목사(중등부 지도)

2013년 1월 24일 목요일 (맑음)

어처구니없는 날이다. 학원에 와야 할 아이들이 증발할 것이다. 오후 내내 전화를 돌리느라 열 받았다.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했다. 헉! 기가 막혀.. 학원을 3일씩이나 결석해야 한다. 수소문 끝에 알아낸 이름이 서울교회이다. 중학교 아이들이 겨울 수련회를 갔다. 애들만 100명 정도 갔더니 상당수가 우리 학원 아이들일 것이다. 오호!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난다. 지난여름, 몇몇 아이들이 그 교회 여름수련회를 가야 한다고 해서 내가 으뜸장을 놓은 적이 있다. 예상대로 아이들은 순순히 학원에 출석을 했다. 한마디로 나의 완승!!! 그러나 흑흑... 지금 예전의 승리감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2013년 1월 28일 월요일 (맑음)

드디어 아이들이 돌아왔다. 내가 살기등등한 표정을 지었음에도 싱긋 웃으며 돌아왔다. 그러더니 나의 딸을 끌어 내리며 숨 막히는 한마디를 던졌다. 나를 사~랑한다. 그 중 영어를 제일 못하는 정호가 나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했다. 수련회를 다녀와서 이제야 공부를 해야 할 목적을 찾았다. 엔지오(NGO)에 대해서는 뜻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던 녀석이 아프리카가 어찌고 저찌고 하니 혼란이 밀려왔다. 조금 전에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는 둘째 딸이 슬며시 내 어깨 너머로 일기를 훑쳐보고는 한 마디 하고 갔다. "엄마, 나도 서울교회 다니면 안돼? 아니면 그 교회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라도 보내 주면 안되나..." 이번 일요일에는 그 교회엘 나가봐야겠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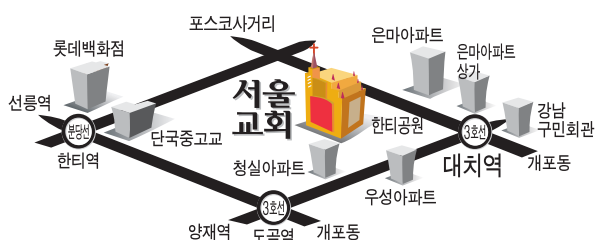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새롭게 시작된 각 교회화교별 자체 예배를 통해 다음세대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2. 이번주에 계속 이어지는 중등부, 디아스포라부, 그리고 에바다수련회가 성령의 총만으로 인생이 변하는 시간이 되도록
3. 비전 2020, 농어촌 100교회,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이 잘 이루어져 귀한 사역들을 통해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부 서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유년부	주일 오전 9시 701호
	II 부	오전 11시 20분	초등부	주일 오전 9시 601호
	III 부	오후 2시	중등부	주일 오전 9시 501호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고등부	주일 오전 9시 101호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젊은이 예 배	청년1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청년2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청년3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세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외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